

『남부군』의 저자 이태와 『빨치산』의 저자 이영식

임기현*

-
- I. 들어가며
 - II. 청주에서 성장한 『남부군』의 저자, 이태
 - III. 청원 부용의 『빨치산』 저자, 이영식
 - IV. 맺음말
-

I. 들어가며

광복 70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분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이념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론에서 드러나듯, 역사를 보는 시선에서도 각기 서 있는 입장에 따라 강한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또한, 분단과 이념으로 말미암아 엄연히 존재했던 실체임에도 역사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빨치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의 파르티(parti)에서 비롯된 파르티잔(partisan)은 우

*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초빙교원

리에게 ‘빨치산’이란 말로 그리 낮설지 않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듯이 특히,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금기’와 ‘망각’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인식은 좌든 우든, 승자의 것이든 패자의 것이든, 영광의 것이든 상처의 것이든,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응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 계층 혹은 개인의 진실을 도외시한 역사는 허위를 범하여 그 자체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가 1980년대 들어 좀 더 진전된 민주화 사회를 이루면서 빨치산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장 앞자리에 섰던 것이 1980년대 후반 이우태가 펴낸 수기 『남부군』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연이어 빨치산 문제를 다룬 기록들이 수기라는 이름을 달고 연이어 출간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서 화제작이 되었던 것은 이영식(본명 육철식)의 『빨치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청탁받은 원고를 쓰면서 빨치산 체험을 가진 이 두 저자 모두 청주 지역과 깊은 연고를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부군』을 쓴 이태는 청주에서 성장기 특히,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육철식은 옛 청원의 부강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격동의 삶을 산 이후 다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자리에 ‘빨치산’이 있었던 것이다. 이태는 1997년에 작고했으며, 이영식은 아직 생존해 있다. 필자는 분단비극의 상징인 ‘빨치산’의 문제가 본격적인 학술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선 필자가 정리한 두 인물의 생애를 지면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

II. 청주에서 성장한 『남부군』의 저자, 이태

1. 이태의 삶

1988년 여름, 빨치산 수기인 이태의 『남부군』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여서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남부군의 작가 이태(李泰)의 본명은 이우태(李愚兌, 1922~1997)로 우리 청주와 떼려야 뗄 수 숙명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제천 출생이지만, 1935년 5년제 청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청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또한, 1952년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살려낸 것 또한, 청주고보에서 5년간을 함께 한, 동기동창 이성우 사령관과 또 한 사람의 동문 덕분이었다. 그가 청주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이렇게 청주와의 인연은 각별했다. 그래서 그는 학창시절 청주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무심천 세시기』라는 제목으로 몇 편의 산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22년 제천에서 태어난 이우태는 신문기자로서 언론인 활동, 빨치산 활동과 체포 그리고 방면, 사업가로, 야당정치인으로, 『남부군』 집필 후 작가로서의 활동 등, 1997년 75세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때까지 극적이이면서도 다채로운 인생역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22년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서 초등교사인 아버지 이석영(李錫永) 씨와 어머니 김진수(金振秀)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경성제일고보(경기고의 전신) 졸업반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했고, 그가 태어날 무렵에는 공주교도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뒤였다.

그리고 이우태는 청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언제 청주로 정착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935년 3월 청주공립고보¹⁾에 입학해서 5년제인 이 학교를 졸업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우태의 술회에 의하면 그의 유일한 친형 역시 그보다 6년 앞서 청주고보를 다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이우태와 청주와의 인연은

1) 고등보통학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지금의 중고등학교가 합해진 개념으로 5년제로 운영되었다. 현재의 청주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당시의 청주고보는 상당구 복문로에 위치했다.

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1935년 3월 17일자 『동아일보』에는 청주공립고보 합격자 명단을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인 합격자 87명의 이름을 일일이 명기하고 있다. 이우태의 술회에 의하면 당시 청주고보는 한 학년이 두 학급으로 운영되었으며, 10여 명의 일본인 동급생이 함께 다녔다고 한다. 이 합격자의 명단에는 이우태가 열네 번째, 뒷날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령관 이성우가 마지막으로 올라 있다.²⁾ 이우태는 청주고보 재학시절 교내 백일장에 작품을 투고하면서 문학의 길을 꿈꾸 문학도 지망생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일제의 ‘의용군’으로 끌려가 남양 군도에서 연합군 포로 감시단으로 1년을 보내고 해방을 맞이했다.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할 무렵에는 저널리스트를 꿈꾸었다. 그가 저널리스트를 꿈꾸게 된 데에는 그가 존경했던 소오 설의식(小悟 薛義植, 1900~1954)의 영향이 컸다. 설의식은 당시 그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 강점기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고, 선명한 논조와 재치 넘치는 논설과 시평 등으로 유명했던 명칼럼니스트였다. 이후 이우태는 그의 선배이자 은사가 되기도 했던 설의식의 깐깐하고도 도도한 기자 정신이 자신의 평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하고 있다.³⁾

이우태는 국학대학⁴⁾ 국문과를 2년 만에 졸업하고, 1948년에는 언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조선신문학원’을 졸업했다. 진보 진영의 『서울신문』 기자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뒤 8개월간 일하다가 합동통신으로 자리를 옮겼다. 합동통신은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유수 언론과 계약을 맺고 있던 최대의 통신사였다. 그는 신문기자 생활을 통해 극단적인 이승만주의, 가혹한 테러, 인권 유린, 너무나 많은 모순, 부조리, 부패, 가치의 전도를 목격하고 실망했다. 이런 분위기 속

2) 『동아일보』 1935년 3월 17일 3면 「청주공립고보 합격자 명단」.

3) 이태, 1992, 『나의 길 나의 삶-한국의 대표지성 60인의 자전에세이』, 동아일보사, 234쪽.

4) 국학대학은 우석대학의 전신으로, 우석대학은 1971년 고려대학교에 흡수·통합되었다.

에서 한국전쟁을 맞는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본격적인 분단 비극은 시작된다. ‘인민군’의 서울 진주 후 합동통신은 북한의 관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로 흡수되었다. 중앙통신이 그를 선발하면서, 그는 중앙통신 기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여자 의용군 위생대⁵⁾ 출입기자가 되었다. 이 위생대 일부 병력에 전선출동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그녀들을 따라 남한 중군 기자 제1호로 낙동강 전선을 향해 내려갔다. 그는 인민군 부상병들의 치료를 위해 강제 차출된 어린 여학생들의 ‘보디가드’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전에서 본사의 무전 지시에 의해 일행과 헤어져 전주로 내려가 중앙통신 전북지사 창설요원이 됐다. 그때가 1950년 초가을이었다. 하지만, 9월 20일 군산 앞 바다에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전주지사 기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전북도당 간부들과 함께 입산을 택한다. 전북 순창군의 산골짜기에 들어가 ‘조선노동당 전북도당 유격사령부’ 대원이 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이었다.

전북도 유격대에서 그는 중대장까지 맡았지만, 그곳에서도 적지 않은 부조리를 경험했고, 그만큼 많은 갈등도 느꼈다고 한다. 이듬해 회문산 ‘독수리부대’를 거쳐 당시 남한 빨치산의 상징적 존재였던 이현상의 ‘남부군’(조선인민유격대 독립 제4지대)에 편입되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산 사람’으로서 17개월을 보낸다. 그는 이때 사령관 이현상의 지도력과 함께 끈끈하고 인간다운 동지적 정이가 모든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는 비로소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계상황에서 두 해 겨울을 보낸 1952년 이른 봄 새벽, 토벌대에 쫓겨 본대와 선이 떨어진 뒤 닳새를 굶은 끝에 지리산 기슭의 마을로 내려갔다가 체포된다. 1952년 3월 19일이었다. 이로써 그의 빨치산 활동은 마감된다.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심정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견뎠으니까 체포당하든 사살당하든 어쩔

5) 의용군의 위생대는 여고생 10여 명에 의과대학 졸업반 여학생 하나씩을 반장으로 수십 개 반으로 편성된 의료구호대라고 할 수 있다 (이태, 1992, 『앞 글』, 235쪽).

수 없다는 심경이었다.”고 술회했다.⁶⁾ 체포 당시 그의 직책은 남부군의 정치참모이자, 김지회 부대 정치부 소속, 『승리의 길』 기자였다.

빨치산 간부를 지낸 전력으로도 그는 극적으로 살아남는다. 체포 후 남원에 있는 서남지구경비 사령부의 205연대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을 때 순시차 이곳을 들른 이성우를 만나게 된다. 청주고보에서 5년간 한 반에서 생활한 토벌대 이성우 사령관⁷⁾을 만나게 된 것이다. 또, 이성우의 소개로 이근복이라는 사령부의 작전참모도 만나게 된다. 이근복 역시 청주중학 4년 선배로 그의 형과 자별한 사이였다. 덕분에 그는 6개월간 수용소와 유치소를 오가며 심문·고문 등을 겪지만, 사형 고비만은 넘기게 된다. 이우태는 결국 청주고보 동기와 동문 덕분에 1952년 11월, C급 판정을 받고 방면된다.

하지만, 자신의 술회대로 ‘빨갱이 전략자라면 태양도 등을 돌리고 형제조차 외면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방면 후 10년 세월을 “나는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과 억울함을 참고 견뎌야”했다. 하지만 이우태는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다. 그 기다림 덕분이었을까, 그는 국회의원으로 중요한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또, 빨치산의 삶을 다룬, 『남부군』의 저술로 그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빨치산의 전력 때문에 거듭되는 연행과 조사·감시·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다.

53년에 집에 돌아와 있으니까 사찰과 경찰이 찾아와서 자꾸 들쭉셨다. 집 포기각서를 써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해서 집문서를 넘겨버렸다. <중략> ‘부역사실’도 돈을 써서 말소했다.⁸⁾

6) 『경향신문』 1988년 8월 18일 3면 「남부군 저자 이태 씨 단독 인터뷰」.

7) 이성우는 당시 군경합동부대인 서남지구 경비사령부의 부사령관이자 경찰 쪽의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이후 이성우는 내무부 차관에까지 올랐다.

8) 『경향신문』 1988년 8월 18일 3면 「위 기사」.

푼푼히 모아두었던 돈은 부패한 정보 경찰에게 건네야만 했다. 또, 그 돈 덕분에 부역 사실도 말소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탄수레도 끌었고, 미장이 노릇도 하고, 숯가루 납품도 했다. 그러다가 1959년 정치인이자 연탄공장 사장이었던 정해영(7선 의원, 8대 국회부의장) 씨의 대동연탄공장에서 무연탄을 받아다 낙원동에서 소매상을 하면서 그와 인연을 맺게 된다. 정해영의 이름으로 신문에 글을 대필해서 기고했다. 이 인연으로 한국 정치에 발을 들인다. 정해영 씨의 원고 집필에서 나아가 고 윤보선 대통령 후보의 선거 선전활동도 하고, 글도 대필했다. 1963년 11월 민정당(民政黨, 후에 민중당으로 당명 개편)의 비례대표로 전국구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하지만 1965년 9월 기존 비례대표의 탈당으로 국회의원을 승계, 제6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리고 1971년 8대 총선에서는 부친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천·단양의 지역구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8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 후보로 공천을 받으면서 이후 그는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1973년 12월에는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재야인사들의 개헌 청원운동에도 동참했다. 1979년에는 신민당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민당의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회’의 의장이 되어 반이철승 연합전선의 한 축을 형성했다. 1980년 11월 신군부에 의해 공포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⁹⁾

제5공화국 들어 기존 정당들이 해산되고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금지에 묶이게 되자, 1981년 5월에 연금에서 풀려난 구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다른 야권 인사들과 함께 등산모임, 이른바 민주산악회를 조직하여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그는 이 민주산악회에서 부회장과 등반대장으로 활동했고, 민주산악회의 노래와 헌장까지도 직접 만들었다. 이후 그의 정치적 역정은 고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1984년 5월 김영삼 계와 김대중 계의 야당인사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9) 『동아일보』 1980년 11월 12일 3면 「정치활동규제자 명단」.

민주화운동 조직체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활동도 하면서 그는 최루가스를 마시며 군사정권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우태 자신 역시 1988년 역사문제연구소가 마련한 강연 자리에서 이 시기를, 군사쿠테타 이후 독재와 싸우는 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은 다 기울였다고 슬회하고 있다.¹⁰⁾

그는 1984년 11월에 해금되어 12월에는 신한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85년 12월 제12대 국회의원 당시 신한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의 기획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1987년에는 해금된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통일민주당이 창당되었고, 이우태는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통일민주당은 ‘대통령 직선개헌 추진’, ‘진정한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국민적 창당의 창건’을 취지로 내세웠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그는 이제 본격적인 창작에도 나선다. 그리고 1988년 『남부군』의 출간을 시작으로 그는 연이어 작품을 발표한다. 1992년에는 김영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재결집된 민주산악회에서 부회장을 다시 맡았다. 타계하기 1년 전인 1996년 2월, 민주자유당이 당명을 바꿔 새로 창당한 김영삼 정권의 집권당인 신한국당에서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¹¹⁾ 이것이 정치인 이우태의 마지막 행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남부군』의 출간

그는 1970년대 유신치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남부군』의 집필에 매달려왔지만, 차마 발표할 수 없었다. 1988년 여름 그가 펴낸 『남부군』 상·하권은 초판 5,000부 매진을 시작으로 50만부나 팔려 나가면서 그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덕분에 그는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학계에서도 우리 근대사의 한 공백을 메우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10) 역사문제연구소, 1988, 「강동정치학원과 지리산 유격대 - 한국현대사의 증언 : 6·25와 빨치산」, 『역사비평』 2호, 361쪽.

11) 『한겨레』 1996년 2월 2일 5면 「국책자문위원 49명 임명」.

평가했다.

그는 『남부군』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다. 그것이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책무가 아닐까. 또 우리에게서는 너무 승리할 사람의 기록만 있을 뿐 패망한 쪽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¹²⁾

『남부군』은 이후 빨치산 수기와 증언이 봇물을 이루는 이른바 ‘빨치산 문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곧이어 청주 부용 출신의 빨치산, 육철식의 자서전적 기록, 『빨치산』이 나온다. 1990년에는 역시 청주 출신이자 청주고 후배가 되기도 하는, 정지영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 ‘남부군’으로 만들어졌다. 이태의 자전적 수기 『남부군』에 바탕을 둔 이 영화에서 이태 역할은 안성기가 맡았고, 빨치산 시인 김영 역은 최민수가 맡았다. 당시로서는 거액인 14억을 들여 2시간 40여 분의 대작으로 영화화되었다.

연이어 그는 『이현상: 남부군 비극의 사령관』(학원사, 1990)을 통해 북한 권력에 의해 거세당하는 남로당의 비운을 기록했으며, 우리 어두운 현대사에 매몰되어 있던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천왕봉』(두레, 1992), 『여순병란, 상·하』(청산, 1994)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1997년에는 한·일 간 세 남녀의 사랑과 우정이 태평양 전쟁의 참화 속에 찢겨 가는 내력을 담은 소설 「전쟁사의 언덕」과, 빨치산 시인 김영의 삶을 조명한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를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려고 했다. 하지만, 출간을 눈앞에 두고 3월 6일 타계함으로써 그의 작품집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는 유고집이 되었다. ‘역사는 대부분 승자의 기록이기에 패자의 기록도 남겨져야 한다.’는 신념이 칠순의

12) 『동아일보』 1999년 8월 9일 15면 「남부군 집필은 죽은 사람에 대한 책무」.

고령임에도 그의 창작열을 식지 않게 만든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청주에서의 학창시절을 다룬 회상록, 「무심천 세시기」

이태의 작품(소설)의 장점으로서는 생활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그가 작가로서 대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났다는 것과 함께 그의 꼼꼼한 기록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유고집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에서는 「무심천 세시기」라는 이름으로 당시 학창시절을 소재로 한 네 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¹³⁾

193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 초반까지 청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도 이미 유명했던 청주의 플라타너스와 벚꽃 이야기, 당시 청주의 유일한, (무성영화)극장이었던 사쿠라좌 극장, 유성영화의 도래와 함께 이 사쿠라좌 시대가 가고 청주극장이 자리를 잡아가던 이야기, 일제 강점기 청주읍내 학교들의 분위기며 학생들의 생활상 등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우태가 청주고보 시절 당시 유도부원을 지냈다는 것, 십여 명의 일본인 학생과 함께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는 것, 우리말을 금지하던 시기에 조선말을 쓴 사람으로 오해받아 호된 경을 치른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다. 또한, 당시 청주고보에는 총 20여 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조선인 선생이 단 한 명만 존재했다는 것, 그마저도 1930년대 후반 우리말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 선생마저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태가 안타까움을 표한 대목은 이밖에도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무심천 뚝방에는 일제가 심어놓은 벚꽃이 터널을 이루어 대단한 장관을 이루었다는 것, 이곳에서 학생들이 군국주의로 병영화

13) 네 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플라타너스와 벚꽃 터널」, 「독사가 된 조선말 한 마디」, 「마지막 교실」, 「똥개 예화」 등이다(이태, 1997,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 살림, 215~239쪽).

된 학교생활을 잠시나마 벗어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해방 직후 성급한 국수주의자에 모조리 베어져나간 것’에 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당시 청주시민이면 다 알 법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던 무렵, 남문로에 있던 청주에서 유일한 일본식 극장이었던 사쿠라좌 극장과 번사 ‘똥개’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중후반 청주의 모습을 세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가 만년에 작품을 냈던 계간지 상상 편집진에게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청주에서의 소년시절을 소설로 쓰고 싶었다.”고 전한다.¹⁴⁾ 그러나 끝내 그는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몇 편의 회상록을 남겼을 뿐이다. 그가 좀 더 생존했다라면 일제 강점기 청주의 모습을 보다 풍부히 담은, 그러면서도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청주를 만났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의 갑작스러운 타계는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청원 부용의 『빨치산』 저자, 이영식

아주 거칠게 말해 이우태가 지식인적 기반 위에서 그의 행로를 걸어갔다면, 육철식은 체험적 기반위에서 자신의 행로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육철식은 이우태만큼이나 극적인 삶을 살아나갔다고 할 수 있다. 월북과 인민군으로서 한국전쟁 참가, 빨치산으로서 활동, 포로로 생포, 전향과 귀순 권고 전단지의 주인공, 대한민국의 국군조직인 군무원(문관)으로 근무, 육군 사병으로의 재입대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우태와 마찬가지로 빨치산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두 권의 수기집을 냈으며, 만년에는 시집도 펴냈다.

『빨치산』의 저자 육철식(필명 이영식, 1932~)은 1932년 충남 연기

14) 이태, 1997, 『위 책』, 280쪽.

군에서 태어나, 6살 때 당시 청원의 부용면 부강리로 이사했다. 육철식은 유년기, 부모님이 부용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농사거리가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1946년 부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로 나가 도청의 사환으로 근무하며 야간중학인 청원공립초급중학교를 다녔다. 초급중학교는 광복 후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을 받아들여 중등 일반 교육을 하던 3년제 학교를 말한다. 이때, 청주사범학교를 다니던 친구 김낙연에 포섭되어 월북을 하게 된다. 당시 사범학교 학생들 가운데에는 좌익 사상을 지닌 이들이 많았고, 김낙연도 남로당 조직원이었다고 한다.¹⁵⁾ 198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가난이 지겨워 월북했다’고도 했다.¹⁶⁾ 어쨌든, 육철식은 16세 되던 1948년 12월 월북하여 남로당 출신을 유격요원으로 양성했던 강동정치학원에 들어가 2개월 반 과정을 수료했다. 강동정치학원은 1947년 9월 미군정의 단속을 피해 월북한 남로당 간부들이 평안남도 강동군에 세웠던 군사정치 학교로 대남 공작원과 유격 전문요원을 양성했던 곳이다. 또 그는 회령에 있던 제3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그곳에서 1년 2개월간의 수료과정을 거쳤다. 육철식은 “제3군관학교는 6·25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 정부가 초급 지휘관을 양성하던 곳으로 제1기 입학생인 자신들이 나온 다음에는 없어졌다”고 술회했다.¹⁷⁾

그는 인민군 총참모부에 선발되어 남로당으로 편입되기 위해 내려오던 중, 한국전쟁 발발 소식을 듣게 된다. ‘꼬마 혁명가’로 불린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총참모부 정찰부 소속 통신 중위(도보 정찰대)로 투입되어 전쟁에 참가했다. 통신 장교를 하면서도 그는 수시로 직접 전투에 참가했고 마을로 보급투쟁을 나서기도 했다. 인민군이 퇴각하자 그는 낙오되어 전남 유격대 총사령부에서 활동했으며, 육철

15) 박결순 인터뷰, 2016, 「북이 버리고 남이 저주한 빨치산의 저자 육철식」, 『부강면지』, 성원출판사, 901~902쪽. 그의 삶을 소개하는 많은 부분은 이 인터뷰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16) 『동아일보』 1988년 8월 23일 15면 「운동권 아들에 교훈주려 집필」.

17) 역사문제연구소, 1988, 「앞 글」, 353쪽.

식은 백아산 인민유격대 연락책(조선노동당 전남도당부 보도과)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의 빨치산들이 겪은 굶주림과 추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고 술회했다.

1952년 2월 그는 백운산에서 포로로 잡혔다. 체포 당시 그는 권총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격발되지 않아 살아남았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전향으로 목숨을 건졌다. 또한, 생포된 다른 빨치산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그가 월북자로서 강동정치학원, 제3군관학교를 거친 특이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만큼 육질식은 이용 가치가 높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향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¹⁸⁾ 전향한 그는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육군본부작전 교육국에서 문관으로 심리전을 지원하며 귀순 권고장을 발행하는 등의 일을 했다.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1958년 국군으로 자원입대하여 사병으로 만기전역을 했다.

제대 후 고향 부강으로 돌아왔지만, 취직이 어려웠다. 빨치산 전력과 중학교 중퇴의 학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를 빨갱이로 매도하며 인쇄물을 돌리는가 하면 경찰서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그는 부강에서 서울신문사 지국을 내고 100여 부씩 돌렸으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수납 위탁업무를 맡아 생계를 꾸려나갔다. 세월이 지나 그는 부용면의 번영회장과 노인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빨치산의 전투 이력을 지낸 덕분에 작가 조정래 등을 비롯하여 술한 문화 예술 분야의 인사들에게 빨치산의 삶을 고증했다. 그의 체험담은 문학작품이나 드라마에서도 중요한 고증자료로 제공되었다.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촬영 때는 1개월 반 동안이나 촬영 스태프와 함께 지내며 고증과 자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우리 사회의 진전된 민주주의와 함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출연(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현대사 발굴-빨치산’, 1991. 6. 27 방영 등)하여 좌·우 이태올로기에 희생된 사람들의 삶을 증언하기도 했다.

18) 박결순 인터뷰, 2016, 「앞 글」, 906쪽.

1988년 그는 이태와 마찬가지로, 필명 ‘이영식’으로 자전적 수기 『빨치산』(행림출판사)을 출간하면서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 책은 당시 30만부가 팔렸다. 그는 출간 무렵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펴낸 의도를 밝혔다.

북에서는 버림을 받고 남에서는 저주를 받아야 했던 많은 생명들이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무덤도 없이 갔습니다. 정치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죽기 전에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어요.¹⁹⁾

그의 말대로 그의 책은 결코 망각되거나 은폐될 수 없는 비극적인 우리 현대사의 한 대목, 빨치산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며 언론계와 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91년 극적인 삶을 경험한 저자가 육순을 맞아 그 사이 넉넉해진 삶에 대한 단상, 지혜와 인생관이 녹아든 서정 시편들을 묶어 시집 『봄을 기다리는 낙엽』(행림출판사)을 출간했다. 그는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세종시 부강면 노고봉 중턱에 자신의 시비 <산아 그리운 산아> 등도 세웠다.²⁰⁾ 1998년에는 지난 1988년에 간행했던 수기집 『빨치산』의 내용을 보완하여 저자의 파란만장한 삶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술회한 수기집 『강동정치학원』(행림출판사)을 출간했다.

2017년 현재 육철식은 86세의 고령으로 9년째 파키슨 병을 앓고 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의 생도 저물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비극적인 현대사의 생생한 증언을 해줄 빨치산 세대들이 스러져가고 있는 것이다.

19) 『동아일보』 1988년 8월 23일 15면 「운동권 아들에 교훈주려 집필」.

20) 이 시비는 육철식이 자비로 세웠다고 한다.

4. 맺음말

두 파르티잔(partisan)이 삶을 통해서나 저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남기고 있는 메시지는, ‘빨치산’은 자신이 나고 자란 남으로부터 또, 자신들이 한때 이념적 좌표로 설정했던 북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빨치산’의 문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생채기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988년 8월 21일 역사문제연구소가 마련한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 참여하여 빨치산 문제를 함께 토론하기도 하였다.²¹⁾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일찍 열린 눈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아프지만 응시해야만 하는, 우리 현대사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물론이고, 그들의 아픔에 작으나마 위로가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

하지만, 분단의 비극, 분단모순을 가장 침예하게 드러내는 이 ‘빨치산 문제’는 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다시 우리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체험을 들려줄 빨치산 세대의 ‘소멸’과 함께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크고 작은 빨치산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에 연관되어 군경과 빨치산, 2만 명에 가까운 아까운 청년들이 희생되었다.²²⁾ 묻어두기에 너무나 큰 희생이다. 우리 지역과 연고를 가진 이우태와 육철식으로 촉발된 필자의 이 성긴 글이 비극의 우리 근대사, 빨치산 문제에 대한 응시의 끈을 놓지 않은 계기가 되었

21)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이 두 사람을 위해 마련한 강연과 토론은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당시의 강연과 토론내용은 『역사비평』 2호(1988), 「강동정치학원과 지리산 유격대」에 그대로 실려 있다.

22) 이 방면의 정확한 통계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태는 『남부군』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물에 의하면 1949년 이래 5년여에 걸친 소백-지리 지구 공비 토벌전에서 교전횟수는 10,717회, 전몰군경의 수는 6,333명에 달한다. 빨치산 측 사망자의 수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줄잡아 1만 수천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아 2만의 생명이 희생된, 그 처절함이 세계 유격전 사상 유례가 드문 이 엄청난 사건에 실록 하나쯤은 남겨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이태, 머리말, 『남부군』, 1988, 17쪽.)

으면 한다. 또한 이 두 사람은 분단비극의 역사적인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각기 소설과 시집을 펴낸 작가이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논문접수 : 2016.10.20, 심사시작 : 2016.10.21, 심사완료 : 2016.10.27.]

| |
|-------------------------|
| 주제어 : 남부군, 빨치산, 이태, 이영식 |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박결순, 2016, 「북이 버리고 남이 저주한 빨치산의 저자 육철식」, 『부장면지』, 성월출판사.

이영식, 1988, 『빨치산』, 행림출판사.

이 태, 1988, 『남부군』 상·하, 두레.

이태 외, 1992, 『나의 길 나의 삶-한국의 대표지성 60인의 자전есе이』, 동아일보사.

이 태, 1997,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 살림출판사.

역사문제연구소, 1988, 「강동정치학원과 지리산 유격대-한국현대사의 증언 : 6·25와 빨치산」, 『역사비평』 2호.